



<그림 2> F.C.M 개념도

3. 용어의 정의

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(가) “F.C.M 공법(Free Cantilever Method)”이라 함은 동바리 없이 기 시공되어 있는 교각을 이용하여 교각의 좌·우로 하중의 균형을 맞추면서 이동식 작업대차(Form traveller)나 이동식 가설 트러스(Moving gantry)를 이용하여 3m~5m 길이의 세그먼트(Segment)를 순차적으로 콘크리트 타설, 프리스트레싱(Prestressing) 도입을 반복하여 교각과 교각 사이의 경간 중앙 연결부에 도달하여 교량 상부 구조를 완성하는 공법을 말한다.

(나) “이동식 작업대차(F/T, Form traveller)”라 함은 상부구조를 고정점(교각) 으로부터 점진적으로 가설할 때에 캔틸레버(Cantilever) 끝단에 세그먼트를 시공하기 위한 거푸집과 작업대 등을 지지하는 장치를 말하며, 이 장치는 전·후방으로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. 이동식 작업대차 내에는 각종 유압식 또는 기계식의 잭이나 고정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, 타설되는 콘크리트 무게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.

(다) “주두부(Pier table)”라 함은 교량 상부공을 전진 가설하기 위해 주탑에 먼저 시공되는 상부공을 말하며, 이 위에 이동식 작업대차를 설치하여 전진 가설을 시작하게 된다.